

수능·모의고사 영어 방법론

읽지 마라, 풀어라.

18번부터 45번까지
한 문제도 놓치지 않는
KYClogic의 정시 풀이 절차서.

序 이 책을 펴내며

영어를 읽는 학생은 시간이 모자라고, 영어를 푸는 학생은 시간이 남는다.

이 책은 영어를 잘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책**이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가장 많이 본 장면은 다음과 같다. 어휘는 외워서 안다. 문법도 어느 정도 정리됐다. 그런데 모의고사만 보면 시간이 모자라고, 끝까지 다 풀어도 등급은 오르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읽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장을, 똑같은 농도로.

수능 영어는 독해 시험이 아니라 **선지 처리 시험**이다. 70분 안에 45문항을 처리해야 하고, 그중 17분은 듣기에 묶여 있다. 남은 53분에 28문제. 한 문제당 1분 50초. 빈칸 추론 한 문제에 4분을 쓰면 어딘가에서 4문제를 버려야 한다. 이 산수가 무너지면 점수도 무너진다.

그래서 이 책은 **절차**를 가르친다. "이 유형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낸다"는 단단한 손동작을. 1등급을 위한 영감이 아니라, 3등급에서 2등급으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반복 가능한 행동 양식**을.

책의 구성은 단순하다. 18번부터 45번까지, 등장 순서 그대로 풀이 절차를 짚는다. 각 유형마다 (1) 무엇을 묻는가, (2) 어디부터 손대는가, (3) 무엇을 버리는가, (4) 함정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매 유형마다 평가원·교육청 기출에서 가져온 예제를 같은 절차로 시연한다.

학생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다. **이 책을 다 읽지 마라.** 한 유형씩, 절차를 외우고, 그 절차로 기출 한 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 보라. 그 뒤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손이 외우는 것은 다르다. 시험장에서 작동하는 것은 손이다.

KYClogic

目 차례

전체는 4부로 구성된다. 각 부는 등급 상승 전략과 직결된다.

PART 0 · 시험 운영의 원칙

0.1 70분의 산수: 시간 배분 설계	6
0.2 반드시 익혀야 할 4가지 습관	8
0.3 소거(消去)의 힘	10
0.4 풀이 순서의 기술 — 1·2차 사이클과 13원칙	12

PART 1 · 대의 파악 (18 ~ 24번)

1.1 18번 — 글의 목적	17
1.2 19번 — 심경·분위기 변화	21
1.3 20번 — 필자의 주장	24
1.4 22번 — 글의 요지	26
1.5 23번 — 글의 주제	28
1.6 24번 — 글의 제목	30

PART 2 · 세부 정보 + 어법·어휘 (25 ~ 30번)

2.1 25 ~ 28번 — 도표·내용 일치	34
2.2 29번 — 어법	37
2.3 30번 — 어휘	40

PART 3 · 고난도 추론 (21 · 31 ~ 40번)

3.1 21번 — 함축 의미 추론	43
3.2 31 ~ 34번 — 빈칸 추론	46
3.3 35번 — 무관한 문장	49

3.4 36 ~ 37번 — 글의 순서	51
3.5 38 ~ 39번 — 문장 삽입	54
3.6 40번 — 요약문 완성	56

PART 4 · 장문 (41 ~ 45번)

4.1 41 ~ 42번 — 1지문 2문항	60
4.2 43 ~ 45번 — 1지문 3문항 (역순 풀이)	63

부록

A. 유형별 절차 한눈에 보기	69
B. 자주 쓰는 시그널 어휘 정리	71
C. Cheat Sheet — 한 장 요약	74

PART ZERO

0

시험 운영의 원칙

유형을 배우기 전에, 시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부터 정한다.
같은 실력으로 한 등급이 갈리는 곳은 여기다.

0.1 70분의 산수

영어는 운영의 시험이다.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후에도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가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가르치는 첫 번째 변수는 어휘력이 아니라 **시간 운영**이다.

실제 시간 구조

수능 영어는 70분이다. 듣기 17문항(약 17분)이 끝나면, 남은 시간은 **53분**이다. 이 53분에 독해 28문항을 풀어야 한다. 산수는 단순하다.

구분	문항 수	권장 시간
듣기 (1~17번)	17문항	17분 (방송 시간 고정)
대의·세부 (18~24, 25~28)	11문항	15분 (1문항 ≈ 1분 20초)
어법·어휘 (29, 30)	2문항	4분
고난도 추론 (21, 31~40)	11문항	26분 (1문항 ≈ 2분 20초)
장문 (41~45)	5문항	8분
마킹·검토	—	여유분 0분 (이미 위에 포함)

⚠ 함정 1 — 21번에 갇히기

21번 함축 의미는 18~20번 직후에 등장하지만, **난이도는 31~34번 빈칸 수준**이다. 18~20을 빠르게 푼 리듬으로 21번에 들어가면 시간이 무너진다. **21번은 무조건 31~34번 풀고 나서, 또는 마지막에 푼다**. 이 한 줄이 등급을 바꾼다.

⚠ 함정 2 — 어법(29)에서 분노하기

29번이 미친듯이 어렵게 출제된 해가 있다.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어법**은 빈칸 추론과 같은 난이도로 평가받았다. 어법에서 30초 안에 답이 안 보이면 즉시 넘긴다. 다음 문제에 영향을 준다.

심리 운영의 원칙 세 가지

원칙 1 — 어려우면 즉시 표시하고 넘어간다

표시 기호는 단순하게. △는 "다시 와서 풀 것", ?는 "버려도 됨". 이 분류만 명확해도 회수 속도가 두 배가 된다.

원칙 2 — 시간이 부족하면 먼저 답을 마킹한다

쓰면서 푸는 학생은 마지막 5분에 마킹하다 한 줄 밀려 6점을 잃는다. **결정한 답은 즉시 OMR에 옮긴다.** △ 표시한 문제만 따로 모아 검토한다.

원칙 3 — "다 이해하지 않는다"는 자세

추론 유형의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이해하라고 만든 글이 아니다. **출제자가 묻는 한 가지를 잡으면 충분하다.** 모든 문장을 이해하려는 욕심이 시간을 잡아먹는다.

*완벽하게 이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시험장은 알려준다.
방법론은 그 사실을 미리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0.2 4가지 습관

유형을 배우기 전에 손에 익혀야 할 네 가지 동작. 이 네 가지가 안 되면 어떤 방법론도 작동하지 않는다.

습관 1 — 부정어 ✓ 표기

지문이든 선지든, not / never / no / few / little / hardly / rarely 같은 부정어가 등장하면 **즉시 위에 ✓를 친다**. 같은 동작을 매번 한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유는 단순하다. 부정어 한 글자가 답을 뒤집기 때문이다. 출제자는 학생이 부정어를 놓치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자리에 함정을 놓는다.

RULE

"NOT"이 보이면 멈춘다. 동그라미든 ✓든, 표시 없이 통과하지 않는다.

습관 2 — 선지부터 본다

대의 파악(18~24번), 내용 일치(25~28번), 무관한 문장(35번), 장문 1지문 3문항(43~45번) — 이 모든 유형의 첫 동작은 같다. **한국어 선지를 먼저 읽는다**.

선지가 한국어인 유형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선지를 먼저 읽으면 (a) 글의 소재가 잡히고, (b) 출제자가 무엇을 물을 지 짐작이 가며, (c) 지문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표적이 생긴다. 표적 없이 지문을 읽는 것은 사냥감 없이 사냥하는 것이다.

습관 3 — 핵심어 표시

지문에서 다음을 만나면 즉시 동그라미를 친다.

- **역접 연결사** — but, however, yet, nevertheless, still, in fact, actually
- **결론 연결사** — so, therefore, thus, in short, in conclusion, that is, in other words
- **예시 연결사** — for example, for instance, such as, like
- **대조 표현** — on the other hand, while, whereas, unlike, in contrast
- **반복되는 명사** — 같은 단어가 3번 이상 등장하면 그것이 소재다.

핵심어 표시의 진짜 목적은 **"읽지 않은 부분"을 만드는 것**이다. 핵심어 사이의 문장은 부연·예시일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부족하면 건너뛴다.

습관 4 — 결론부터 찾는다

영어 글은 한국어 글과 다르다. **두괄식** 또는 **양괄식**이 압도적으로 많다. 즉, 결론은 지문의 첫 문장이거나 마지막 문장에 거의 항상 있다.

지문 위치	역할	읽을 때 우선순위
첫 문장	주제 제시 또는 통념	★★★★ (필독)
but/however 직후	필자의 진짜 주장	★★★★ (필독)
중간 부연·예시	주장 뒷받침	★ (시간 있을 때)
마지막 문장	결론·재진술	★★★★ (필독)

이 네 가지 습관은 매번, 모든 문제에서, 동일하게 반복한다. 손이 외울 때까지.

0.3 소거(消去)의 힘

답을 고르는 것보다 답이 아닌 것을 지우는 게 더 빠르고, 더 정확하다. 특히 24번(제목), 23번(주제), 22번(요지)은 100% 소거로 푸는 문제다.

소거가 더 강한 이유

한국 학생들은 5개 선지 중 "정답을 적극적으로 고르는"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영어는 다르다. **정답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 때가 많다.** 매력적인 오답이 정답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차를 뒤집는다. **먼저 명백히 틀린 4개를 지운다.** 남은 1개가 답이다. 이 방식이 훨씬 안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준이 명확하다.** "이 단어는 지문에 없음" → ×. 객관적 판정이 가능하다.
2. **함정에 덜 걸린다.** 매력적인 오답은 "그렇듯해서" 끌리는 거지, 지문 근거로 보면 모순이 있다. 소거하면 그 모순이 보인다.
3. **시간이 절약된다.** 5개 중 명백한 오답 3~4개는 1초 안에 지워진다. 남은 1~2개에만 집중하면 된다.

소거의 4단계 절차

PROCEDURE

- 1단계 · 핵심어 ○ × 검사
- 2단계 · 부분 × 표 (선지 일부만 틀린 것)
- 3단계 · 비교·대조 (지문과 선지의 정도 차이)
- 4단계 · 최종 검토 (남은 1~2개의 결정)

▶ 1단계 — 핵심어 ○ × 검사

선지의 핵심어가 지문에 등장하는가? 아니면 지문 내용과 모순되는가? 모순되면 즉시 ×.

예시: 지문이 "수면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데, 선지에 "수면 부족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 모순, 즉시 ×.

▶ 2단계 — 부분 × 표

선지에서 부분만 잘못된 경우다. 영어 선지에서 자주 쓰이는 함정이다.

- "좋은 식단을 유지하면 **뇌 기능**이 향상된다." → 지문은 "수면"이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말함. 소재가 다름 → ×.
- "**불면증**은 주위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지문은 본인에 대한 영향을 다룸. 대상이 다름 → ×.

▶ 3단계 — 비교·대조

남은 2~3개 선지를 나란히 놓고, 지문의 핵심 문장과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 본다. 이때 "**정도**"가 중요하다. 지문이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선지가 "필수다"라고 하면 너무 강하다.

▶ 4단계 — 최종 검토

남은 1~2개 중 결정한다. 이때는 직관이 아니라 **지문의 근거 문장**을 다시 본다. "이 선지가 답이라면 그 근거는 지문 어디?"를 자문한다. 근거가 안 보이면 다른 쪽이다.

⚠ 적자생존 — 적은 자가 살아남는다

소거를 할 때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지문 선지에 미련을 두는 것이다. **한 번 ×친 선지는 다시 안 본다.** 표시한 손을 믿어라. 흔들리면 시간만 잡아먹는다.

0.4 풀이 순서의 기술

이 책의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이자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다. "순서대로 풀지 마라." 18번부터 45번까지 차례대로 푸는 학생은 이미 출제자의 함정에 한 번 걸려 있는 셈이다.

왜 18 → 45 순서가 학살인가

70분 안에 듣기 17문항(약 25분) + 독해 28문항을 끝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중력은 떨어지고, 뇌는 지친다. 그런데 18~20번은 가장 쉬운 유형이고, 41~45번은 가장 어렵고 긴 유형이다.

순서대로 풀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 가장 쉬운 18~20번을 가장 머리가 맑을 때 푼다 → **시간 낭비**
- 31~34번 빈칸에서 시간을 흘려보낸다 → 35번 이후 멘붕
- 가장 긴 41~45번을 가장 지쳤을 때 만난다 → **정답률 폭락**

결과적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를 시간 부족으로 못 풀고", "어려운 문제는 멘탈이 깨져서 못 풀고" 두 번 손해다.

KYC Logic 풀이 순서 — 1차 / 2차 사이클

▶ 1차 사이클 — 듣기 후반 ~ 듣기 직후

듣기 시간 중반·후반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듣기에서 "답이 보이는 순간" 그 즉시 마킹하고, 다음 문제 안내가 나오기 전까지의 짧은 틈을 활용해 독해의 **가장 가벼운 문제**부터 손을 댈다.

1차 사이클 — 듣기 시간 중

- ① 18~20번 (목적 / 심경 / 주장)
- ② 25~28번 (도표 / 안내문 / 일치)
- ③ 45 → 44 → 43번 (장문 일치 → 지칭 → 순서, 역순으로)

1차 사이클 — 듣기 직후

- ④ 22~24번 (요지 / 주제 / 제목)
- ⑤ 29 / 30 / 35 / 40 / 41 / 42 — 자유롭게 (체력·집중도에 따라)

⚠ 듣기 중 풀이의 원칙

듣기 때 18-20, 25-28, 45-43의 선지에 표시만 해두는 것이 가능하다. 단, 듣기에 100% 집중이 안 될 것 같으면
무리하지 말고 듣기 끝난 직후로 넘긴다. **듣기 한 문제 놓치는 게 더 큰 손해다.**

▶ 2차 사이클 — 머리를 본격적으로 쓰는 구간

1차에서 "확실히 풀리는 것"을 끝내고 나면, 이제 머리를 본격적으로 써야 하는 유형들만 남는다.

2차 사이클

- ⑥ 36~37번 (단락 순서)
- ⑦ 38~39번 (문장 삽입)
- ⑧ 21번 (함축 의미) — 빈칸과 다른 풀이가 들어간다
- ⑨ 31번 → 32번 → 33번 → 34번 (빈칸 추론) — 2점 문항부터, 3점은 마지막

21번을 빈칸 4문항 **앞**에 두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21번은 밑줄 친 비유 표현 한 곳만 "한정"해서 보면 빠르게 처리되는 문제다. 빈칸보다 시간이 적게 든다. 둘째, 21번을 풀면서 본문의 주장 흐름을 한 번 훑게 되어 빈칸으로 갈 때 머리가 워밍업된다.

31~34번을 마지막에 두는 이유는 분명하다. **가장 어렵고,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가장 멘탈을 갉아먹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이걸 먼저 풀면 다른 모든 문제를 망친다.

| 풀이 순서 한눈에 보기

듣기 시간 → 18-20 → 25-28 → 45→44→43



듣기 직후 → 22 → 23 → 24



자유 풀이 → 29 / 30 / 35 / 40 / 42→41



2차 사이클 → 36-37 → 38-39 → 21 → 31~34

시간 분배 권장표

1등급 안정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권장 시간 분배다. 목표 등급에 따라 $\pm 10\%$ 조정한다.

구간	문항	시간
듣기 + 1차 사이클 듣기 중 풀이	듣기 17문항 + 일부 독해	25분
22~24번	3문항	4분
29 / 30 / 35	3문항	6분
40 / 41~42	3문항	7분
36~39	4문항	8분
21 / 31~34	5문항	15분
검토 / OMR 마킹	—	5분
합계		70분

이 표의 핵심은 **"21번부터 31~34번까지 한 묶음으로 15분을 확보"** 한다는 점이다. 21번에서 시간을 절약해 31~34번 한 문항이 4분 가까이 걸려도 괜찮게 만든다는 뜻이다. 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빈칸 유형에서 1~2개를 반드시 놓친다.

실전 13원칙 — 정리 노트의 핵심

KYC Logic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13개의 실전 원칙이다. 매 모의고사 시작 전에 한 번씩 읽고 들어가라.

- ① 듣기 때 중반·후반이 빠르므로 초반 여유로울 때 최대한 긴장하면서 뒤에 풀도록 준비.
- ② 듣기 풀기 벅차면 듣기에만 집중. 혹은 뒤에 선지 표시만.
- ③ 18-20, 25-28, 45-43은 선지 표시하면서 5번 → 1번 순으로 검토.
- ④ 22-24는 선지부터 표시. 보기, 뒷줄부터 확인. 연결사·부정어 조심. 뒷줄에 안 나오면 첫 문장 확인, 예시/설명 부분 구조 파악.
- ⑤ 29번에 2분 이상 투자 X. 모르면 넘어가도록. 뒤에 문제 푸는 게 더 좋음.
- ⑥ 30, 40, 42 — 어휘 파악해 보고, 모르는 어휘가 더 많다 싶으면 빠르게 포기.

- ⑦ 30, 42는 각 단어 증명하기 (1순위 — 해당 문장, 2순위 — 앞뒤 문장).
- ⑧ 42 → 41 순으로 풀기 (42번 풀 때 해당 문장들만 조합해도 41번 주제 나옴).
- ⑨ 만약 42번 어휘가 어려워 못 풀면, 22-24 풀듯이 풀기.
- ⑩ 단! 22-24 풀듯이 풀거면 문단 2개 이상일 때는 각 문단별 중요도 잊지 말고 풀기 (뒤 문단을 과도하게 중요시하지 않게).
- ⑪ 40번은 빈칸에 요하는 것 위주로 찾기. 요약문장에 한정시키는 것 중요.
- ⑫ 36-39 — 앞·앞·앞·뒤·뒤·뒤 상자 순서, 지칭, 연결사, 부정문, 소재 기억.
- ⑬ 21, 31-34 — 선지파악부터, +/- 가능하면 가르도록, 소거 풀이법.

★ 이 13개를 외워두는 것 자체가 1등급의 절반이다

각 항목이 책 전체에서 어떤 챕터로 펼쳐지는지 따라가며 읽어라. PART 1부터 PART 4까지의 각 유형 챕터는 결국 이 13원칙의 상세 매뉴얼이다.

모든 유형의 공통 4원칙

어떤 유형을 풀든 다음 4가지는 항상 한다. 이 4가지가 몸에 배지 않으면 어떤 유형 기술을 배워도 작동하지 않는다.

공통 4원칙

- ① 부정어 ✓ 표기 — not, never, no, hardly, rarely, scarcely, few, little
- ② 선지부터 본 다음 본문 진입
- ③ 핵심어(키워드) 동그라미 또는 밑줄
- ④ 결론부터 찾기 (마지막 문장 → 첫 문장 → 가운데 순)

PART ONE

1

대의 파악 18 ~ 24번

글 전체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뽑아내는 유형이다.

공통 절차는 단순하다 — 다 읽지 않는다, 결론만 잡는다, 소거로 마무리한다.

가장 빠르게 점수가 오르는 구간이다.

1.1 18번 — 글의 목적

편지·이메일·공지문 형식의 짧은 글이다. **절대 다 읽으면 안 된다**. 18번은 본문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본문 후반부의 한 문장**에서 나온다.

유형 분석

18번은 보통 Dear ~로 시작하는 편지글 또는 To whom it may concern 형식의 공지문으로 출제된다. 길이는 80~110단어. 발신자는 학교, 단체, 개인 등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글의 구조다. 18번 지문은 **99%가 다음 3단 구조**를 따른다.

구간	내용	중요도
① 도입부 (1~2문장)	인사말, 자기소개, 상황 배경	읽지 않는다
② 전개 (2~3문장)	왜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배경	읽지 않는다
③ 핵심 (1~2문장)	"~해 주십시오" / "~을 알려드립니다"	★★★ 답

풀이 절차

18번 풀이 절차

1. 다 읽지 마라. 절대.
2. 핵심어 표시 (please / kindly / I am writing to / would like to)
3. 결론부터 찾는다 — 뒷부분 1~2문장이 답
4. 한국어 선지 5개를 보고 동사 위주로 매칭

▶ 핵심어 — 목적 시그널

다음 표현이 등장하는 문장이 정답 단서다.

- I am writing to ~ / I would like to ~ — "~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 please ~ / kindly ~ — "부디 ~해 주세요"
- we are asking you to ~ / request — 요청
-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 — "~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 we regret to inform you ~ — "유감스럽게도 ~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어 선지의 함정

한국어 선지에는 핵심 동사가 마지막에 온다. **동사만 보면 함정에 덜 걸린다.**

선지 동사	대응 영어 표현
요청·부탁하려고	ask, request, would like, please
안내·공지하려고	inform, announce, let you know
감사하려고	thank, appreciate, grateful
사과하려고	apologize, sorry, regret
거절·거부하려고	decline, refuse, unable to
제안·권유하려고	suggest, recommend, propose
항의·불만 표하려고	complain, dissatisfy, disappointed
홍보·광고하려고	promote, introduce, invite to

예제 1

2024학년도 수능 18번 변형 **2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ar Coach Johnson,

My name is Christina Markle, and I am Bradley Markle's mother. Bradley and his friends have been working out at your fitness center for six months and they have made remarkable progress. As Bradley's birthday is coming up, I'm thinking about hosting a small birthday party for him at your fitness center. Could you please let me know if it is possible to rent the facility on Saturday afternoon? The reason I'm asking you this is that Bradley really wants to have his birthday party in the place he loves. I'd appreciate your reply.

Best wishes,
Christina Markle

- ① 헬스 트레이너 자격에 관해 문의하려고
- ② 결제 시스템 오류에 대해 항의하려고
- ③ 운동 시설 대여 가능 여부를 문의하려고
- ④ 자녀의 회원권 연장을 신청하려고
- ⑤ 시설 견학 일정을 예약하려고

KYClogic 풀이

- ① **선지부터.** 동사 위주로: 문의 / 항의 / 문의 / 신청 / 예약. → "문의"가 두 개(①③). 비교 대상 좁혀짐.
- ② **결론부터.** 본문 도입(인사·소개)은 건너뛰고, "Could you please let me know..." 문장을 정조준한다.
- ③ **핵심어 매칭.** rent the facility on Saturday afternoon = 시설 대여 가능 여부. 대상은 자격(①)도 견학(⑤)도 아닌 "시설".
- ④ **소거 검증.** ②④⑤는 본문에 근거 자체가 없다. ①은 "헬스 트레이너 자격"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없다 → ×.

정답 ③ — 운동 시설 대여 가능 여부를 문의하려고

현장 팁

18번에서 "감사하려고"가 정답인 경우는 거의 없다. 본문에 thank you가 있어도 그것은 보통 인사일 뿐, 글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 **감사 표현은 미끼**인 경우가 많다.

1.2 19번 — 심경·분위기 변화

주인공의 감정이 처음에서 끝까지 어떻게 바뀌는지를 묻는다. 공식은 단순하다 — **앞뒤 +/- 부호 매기기**.

유형 분석

19번은 짧은 서사문이다. 보통 한 인물(고유명사 — Zoe, Sarah, Tom 등)이 등장하고, 어떤 사건을 겪으며 감정이 변한다. 정답은 다섯 개의 "감정 형용사 → 감정 형용사" 화살표 선지 중 하나다.

오답률은 매우 낮은 유형이다. 보통 정답률 90% 이상. **하지만 방심하면 틀린다**. 2025학년도 수능 19번은 긍정→부정 구조로 출제되어 학생들이 함정에 걸렸다. "수능은 항상 부정→긍정"이라는 선입견이 화근이었다.

풀이 절차

19번 풀이 절차

1. 글을 다 읽지 마라.
2. 5개 선지에 +/- 부호를 매겨라 (앞 → 뒤).
3. 본문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감정 시그널을 찾고, 각각 + / - 부호를 단다.
4. 부호가 일치하는 선지만 남는다.

▶ 감정 형용사 +/- 분류표

+ (긍정)	- (부정)	0 (중립·복잡)
hopeful, delighted, proud, relaxed, calm, satisfied, grateful, confident, relieved, excited, thrilled, pleased	nervous, anxious, worried, scared, frustrated, angry, disappointed, depressed, embarrassed, ashamed, regretful, jealous, guilty, lonely	indifferent, bored, curious, surprised, puzzled, confused

▶ 본문에서 +/- 시그널

감정을 직접 말하는 단어보다 **신체 반응 묘사**가 더 정확한 단서다.

- 신체 반응

sweaty hands, pale face, uneasy, trembling, heart
pounding, lump in throat, frown, shudder

+ 신체 반응

big smile, laugh, applaud, jump, eyes
shining, heart soared, felt as if in heaven

예제 2

평가원 19번 출제 패턴

2점

다음 글에 드러난 Zoe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principal stepped on stage. "Now, I present this year's top academic award to the student who has achieved the highest placing." He smiled at the row of seats where twelve finalists had gathered. **Zoe wiped a sweaty hand** on her handkerchief and glanced at the other finalists. **They all looked as pale and uneasy as herself.** Zoe and one of the other finalists had won first placing in four subjects so it came down to how teachers ranked their hard work and confidence. "The Trophy for General Excellence is awarded to Miss Zoe Perry," the principal declared. "Could Zoe step this way, please?" **Zoe felt as if she were in heaven. She walked into the thunder of applause with a big smile.**

- ① hopeful → disappointed
- ② guilty → confident
- ③ nervous → delighted
- ④ angry → calm
- ⑤ relaxed → proud

KYClogic 풀이

- 1 선지에 부호.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2 앞부분 부호. "sweaty hand", "pale", "uneasy" → 명백히 -. → ①, ⑤ 즉시 소거.
- 3 뒷부분 부호. "felt as if she were in heaven", "big smile", "thunder of applause" → 명백히 +. → 남은 것은 ②③④.
- 4 감정 단어 매칭. 앞부분의 핵심은 손에 땀나고 창백한 상태 — 이것은 "guilty(죄책감)"도 "angry(분노)"도 아닌 **nervous(긴장)**다. 뒷부분은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 — "calm(평온)"보다 강한 "delighted(기쁨)".

정답 ③ — nervous → delighted

19번을 30초에 푸는 법

앞부분 첫 두 줄과 뒷부분 마지막 두 줄만 본다. 중간은 보지 않아도 99% 풀린다. **중간을 안 봐도 된다는 자신감** 이 시간을 만든다.

1.3 20번 — 필자의 주장

필자가 가장 강하게 말하고 싶은 한 문장을 묻는다. 단서는 본문 어딘가의 명령형, must, should, need to 같은 강한 어조에 있다.

유형 분석

20번은 18번처럼 한국어 선지로 출제된다. 차이점은 18번은 형식적 글(편지 등), 20번은 **설득적 에세이**라는 점이다. 필자가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드러낸다.

구조는 보통 양괄식이다.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주장이 정리된다. 또는 but/however 직후에 주장이 등장한다.

풀이 절차

20번 풀이 절차

1. 한국어 선지를 먼저 본다 (특히 동사 어미).
2. 본문에서 **must / should / need to / have to / 명령형**을 찾는다.
3. 결론 시그널 (**so, therefore, thus, in short**) 직후의 문장을 찾는다.
4. 한국어 선지와 매칭. 너무 일반화된 선지는 ×.

▶ 주장 시그널 — 필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표현

- **must / should / have to / need to + 동사**
- **It is important that ~ / It is necessary to ~**
- **In conclusion / Therefore / Thus / So**
- **Don't ~ (명령형 부정)**
- 마지막 문장 (보통 주장 재진술)

예제 3

2025학년도 수능 20번 출제 패턴 **2점**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I was in the army, my instructors would show up in my barracks room, and the first thing they would inspect was our bed. It was a simple task, but every morning we were required to make our bed to perfection. It seemed a little ridiculous at the time, but the wisdom of this simple act has been proven to me many times over.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and it wi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By the end of the day, that one task completed will have turned into many tasks completed. **If you can't do little things right, you will never do the big things right.**

- ① 숙면을 위해서는 침대를 깔끔하게 관리해야 한다.
- ② 일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협동심을 발휘해야 한다.
- ③ 올바른 습관을 기르려면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한다.
- ④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상 시간이 일정해야 한다.
- ⑤ 큰일을 잘 이루려면 작은 일부터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KYClogic 풀이

- 1 **선지부터.** 동사 어미: 관리해야 / 발휘해야 / 따라야 / 일정해야 / 수행해야. → 모두 주장형.
- 2 **함정 선지 ① 차단.** ①은 본문의 "make your bed"라는 표면 단어와 일치하지만, 의미가 다르다. 본문은 "잠자리 정리"가 아니라 "작은 일을 하는 것"의 비유로 사용했다.
- 3 **결론 시그널.** 마지막 문장 — "If you can't do little things right, you will never do the big things right." → 작은 일 ↔ 큰 일의 관계가 핵심.
- 4 **매칭.** "작은 일 → 큰 일"이라는 인과 관계가 들어간 선지는 ⑤. ②③④는 핵심어 자체가 본문에 없다.

정답 ⑤ — 큰일을 잘 이루려면 작은 일부터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함정 — 표면 단어 매칭

본문에 등장한 단어("침대", "정리")를 그대로 담은 선지는 거의 항상 함정이다. 출제자는 학생이 이해 없이 단어만 매칭하는 것을 알고 있다. **선지의 비유 또는 추상화 수준이 정답의 위치다.**

1.4 22번 — 글의 요지

20번과 거의 같다. 다만 어조가 한 단계 약하다. 20번이 "주장"이라면 22번은 "정리". 같은 절차, 같은 소거 — 그러나 정답률은 50%대로 떨어진다. 왜?

왜 22번이 어려운가

최근 몇 년 평가원 시험에서 22번 정답률이 50%대까지 내려간 적이 빈번했다.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22번은 정답률이 더 낮았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22번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다음 셋이다.

1. **선지의 정도 차이**가 미세해진다. "도움이 된다" vs "필수다" vs "최선이다" — 한국어로는 다 비슷하지만, 영어 본문 근거와 매칭하면 한쪽이 강하거나 약하다.
2. **매력적 오답**이 본문 일부 내용과 겹친다. 본문의 한 부분만 정확히 말하는 선지는 정답이 아니라 부분 일치 함정이다.
3. **학생의 방심** — "22번은 쉽다"는 인식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안 쓰고 넘긴다.

풀이 절차

22번 풀이 절차 (= 20번)

1. 한국어 선지부터.
2. but / however / so / therefore 표시.
3. 첫 문장 + 역접 직후 + 마지막 문장. 이 셋만 본다.
4. **소거**로 마무리. 부분 일치 선지 차단.

예제 42024학년도 9월 평가원 22번 출제 패턴 **2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ny people view sleep as merely a "down time" when their brain shuts off and their body rests. In a rush to meet work, school, family, or household responsibilities, people cut back on their sleep, thinking it won't be a problem, because all of these other activities seem much more important. **But research reveals** that a number of vital tasks carried out during sleep help to **maintain good health** and enable people to **function at their best**. While you sleep, your brain is hard at work forming the pathways necessary for learning and creating memories and new insights. Without enough sleep, you can't focus and pay attention or respond quickly. A lack of sleep may even cause mood problems. In addition, growing evidence shows that **a continuous lack of sleep increases the risk for developing serious diseases.**

- ① 수면은 건강 유지와 최상의 기능 발휘에 도움이 된다.
- ② 업무량이 증가하면 필요한 수면 시간도 증가한다.
- ③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 뇌 기능이 향상된다.
- ④ 불면증은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⑤ 꿈의 내용은 깨어 있는 시간 동안의 경험을 반영한다.

KYClogic 풀이

- ① **선지부터.** 핵심 명사: 수면 / 수면 시간 / 식단·뇌 / 불면증 / 꿈. → 5개 모두 다른 소재.
- ② **역접 시그널.** 본문 중반 "But research reveals" → 이 직후가 진짜 주장.
- ③ **핵심 문장 추출.** "vital tasks carried out during sleep help to maintain good health and enable people to function at their best." — 수면 = 건강 + 최상의 기능.
- ④ **소거.** ② "수면 시간 증가" — 본문 근거 없음 ×. ③ "식단" — 소재 어긋남 ×. ④ "주위 사람" — 본문은 본인 영향만 다룸 ×. ⑤ "꿈" — 본문에 없음 ×.

정답 ① — 수면은 건강 유지와 최상의 기능 발휘에 도움이 된다.

1.5 23번 — 글의 주제

선지가 영어로 나온다. 한국어 선지보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절차는 같다. 핵심은 **소거**. 그리고 영어 선지를 만났을 때의 한 가지 추가 기술 — 한국어로 옮기기 전에 핵심어부터 본다.

23번 vs 22번 — 차이점

구분	22번 (요지)	23번 (주제)
선지 언어	한국어	영어
선지 형태	완결된 문장	명사구
물어보는 것	필자의 결론	글이 다루는 화제
난이도	중상 (정답률 ~60%)	중 (정답률 ~70%)
3점 출제	드물다	자주 (학년에 따라)

풀이 절차

23번 풀이 절차

1. 5개 영어 선지의 **핵심 명사**만 빠르게 추출.
2. 본문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반복되는 명사**를 찾음.
3. 반복 명사 = 글의 소재. 그 소재가 들어간 선지만 남김.
4. 남은 선지 중 **동사·전치사구**의 정도를 본문과 비교.

▶ 23번 영어 선지의 구조 분해

영어 선지는 보통 다음 형태다.

핵심 명사 + 전치사구 / 분사구 / 관계절

예: traditional wisdom helping our survival in harsh climates → 핵심: traditional wisdom + helping survival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 이 긴 영어 선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려 한다. **1초 만에 핵심 명사만 잡고 본문과 매칭한다.** 자세한 해석은 마지막 1~2개 남았을 때 한다.

예제 5

평가원 23번 출제 패턴 **3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whole of human society operates on knowing the future weather. **For example,** farmers in India know when the monsoon rains will come next year and so they know when to plant the crops. Farmers in Indonesia know there are two monsoon rains each year, so next year they can have two harvests. This is based on their knowledge of the past, as the monsoons have always come at about the same time each year in living memory. **But the need to predict goes deeper than this; it influences every part of our lives.** Our houses, roads, railways, airports, offices, and so on are all designed for the local climate. **For example,** in England all the houses have central heating, as the outside temperature is usually below 20°C, but no air-conditioning, as temperatures rarely go beyond 26°C, while in Australia the opposite is true: most houses have air-conditioning but rarely central heating.

- ① new technologies dealing with climate change
- ② difficulties in predicting the weather correctly
- ③ weather patterns influenced by rising temperatures
- ④ knowledge of the climate widely affecting our lives
- ⑤ traditional wisdom helping our survival in harsh climates

KYClogic 풀이

- 1 선지 핵심 명사.** ① technologies / climate change ② difficulties / predicting ③ weather patterns / temperatures ④ knowledge / climate / lives ⑤ traditional wisdom / survival
- 2 본문 반복 명사.** "weather", "predict", "climate", "lives" — 이 네 단어가 반복.
- 3 결론 문장.** "But the need to predict goes deeper than this; it influences every part of our lives." → 핵심: 날씨/기후 예측이 우리 삶 전반에 영향.
- 4 소거.** ① "기후 변화 신기술" — 본문 없음 ×. ② "예측의 어려움" — 본문은 어렵다고 안 함 ×. ③ "온도 상승" — 본문 없음 ×. ⑤ "전통적 지혜" — 너무 좁음, 본문은 현대 사회 전반 ×.

정답 ④ — knowledge of the climate widely affecting our lives

1.6 24번 — 글의 제목

100% 소거 문제다. 100% 이해하려 하지 마라. 못한다. 제목 문제는 본문의 **함축적 표현**이 정답이고, 표면적으로 본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선지는 거의 항상 오답이다.

왜 24번이 어려운가

24번 정답률이 60%대인 이유는 단순하다. **선지가 비유적**이기 때문이다. 본문은 "감정 어휘를 풍부하게 가지면 좋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는데, 정답 선지는 **Detailed Labeling of Emotions Is Beneficial** 같은 추상화된 표현으로 나온다.

또 자주 사용되는 함정은 다음과 같다.

- 본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선지 → 80% 함정. 출제자는 표면 매칭하는 학생을 잡는다.
- 너무 일반적인 선지 → ×. 제목은 글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
- 본문 일부만 다룬 선지 → ×. 제목은 글 전체를 포괄해야 한다.

풀이 절차

24번 풀이 절차 — 100% 소거

1. 본문을 100% 이해하지 마라. 핵심 한 줄만.
2. 5개 선지를 핵심 명사구로 압축.
3. 본문에 없는 명사가 들어간 선지 — 즉시 ×.
4. 본문의 **반대**를 말하는 선지 — 즉시 ×.
5. 본문의 **일부만** 다룬 선지 — ×.
6. 남은 1개가 답.

예제 6

평가원 24번 출제 패턴 **2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ur ability to accurately recognize and label emotions is often referred to as *emotional granularity*. In the words of Harvard psychologist Susan David, "Learning to label emotions with a more nuanced vocabulary can be absolutely transformative." David explains that if we don't have a rich emotional vocabulary, it is difficult to communicate our needs and to get the support that we need from others. But those who are able to distinguish between a range of various emotions "do much, much better at managing the ups and downs of ordinary existence than those who see everything in black and white." In fact, research shows that the process of labeling emotional experience is related to greater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social well-being.

- ① True Friendship Endures Emotional Arguments
- ② Detailed Labeling of Emotions Is Beneficial
- ③ Labeling Emotions: Easier Said Than Done
- ④ Categorize and Label Tasks for Efficiency
- ⑤ Be Brave and Communicate Your Needs

KYClogic 풀이

- 1 본문 핵심 한 줄. 감정을 미세하게 구분하는 사람은 일상의 기복을 더 잘 관리한다 = 감정 분류는 이롭다.
- 2 소거 1. ① "True Friendship" — 우정 얘기 아님 ×. ④ "Tasks for Efficiency" — 작업 효율 아님 ×. ⑤ "Be Brave" — 용기 얘기 아님 ×.
- 3 소거 2. ③ "Easier Said Than Done" — 본문은 "어렵다"고 안 함, 오히려 "이롭다" → 정반대 ×.
- 4 남은 1개. ② "Detailed Labeling of Emotions Is Beneficial" — 본문의 emotional granularity = detailed labeling, 본문의 결론 = beneficial. 일치.

정답 ② — Detailed Labeling of Emotions Is Beneficial

24번을 위한 마지막 조언

남은 두 개에서 흔들리면, 둘 중 어느 쪽이 본문 전체를 더 포괄하는지 본다. 한 부분만 강조하는 선지는 거의 항상 오답이다. "넓이"가 같다면, "정확도"를 본다.

PART TWO

2

세부 정보 + 어법·어휘 25 ~ 30번

25~28번은 도표·내용 일치. 절차만 지키면 만점.

29번 어법은 6년치 문법을 다 떠올리게 만드는 광범위한 영역.

30번 어휘는 사실상 30번 자리에 들어간 빈칸 추론.

2.1 25~28번 — 도표·내용 일치

유형은 네 가지다 — 도표(25), 일치/불일치(26), 안내문 일치(27, 28). 공통 절차 한 가지만 외우면 된다. **선지를 먼저 보고, 5번부터 1번으로 역순 매칭.**

왜 역순으로 푸는가

대부분의 학생은 본문을 위에서부터 읽으며, 1번 선지부터 차례대로 검증한다. 이 방식의 문제는 두 가지다.

1. **정답이 5번에 있을 때** 시간이 가장 많이 든다. 그런데 출제자는 정답을 5번에 둘 때가 많다.
2. 1번부터 검증하면, 본문의 앞부분을 반복해서 읽게 된다. **중복 읽기**가 발생한다.

역순으로 풀면 본문의 뒷부분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본문의 흐름과 선지가 **병렬**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번 읽으면 끝난다.

풀이 절차

25~28번 풀이 절차

1. 선지부터 본다 (한국어 5개).
2. 핵심어(숫자, 고유명사, 동사) 표시.
3. 질문 확인 —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부정어 ✓!)
4. ⑤번부터 ①번 순서로 본문과 매칭.

▶ 각 유형별 핵심어

유형	표시할 핵심어
25번 도표	숫자, 비교급(more, less, twice, half), 최상급(highest, lowest)
26번 일치 (인물·사물)	숫자(나이, 연도), 고유명사, 동사(태어났다, 졸업했다, 출판했다)
27·28번 안내문	날짜, 시간, 가격, 인원 수, 특이 조건(회원 한정 등)

26번 —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

2024학년도 수능 26번은 Antonie van Leeuwenhoek 관련 문제였다. 학생들이 헛갈린 함정은 다음과 같다.

본문	오답 선지	왜 함정?
He knew only one language — Dutch	여러 개의 언어를 알았다.	only가 곧 부정어. 한 개만 알았다는 뜻.
At the age of 22, Leeuwenhoek returned to Delft.	16세에 Delft로 돌아왔다.	16세는 다른 도시(Amsterdam)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한 나이.
Since he couldn't draw well, he hired an artist...	화가를 고용하여 설명하는 것을 그리게 했다.	실제로는 일치. 함정 같지만 정답.

예제 7

2024학년도 수능 26번 출제 패턴 **2점**

Antonie van Leeuwenhoek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onie van Leeuwenhoek was a scientist well known for his cell research. He was born in Delft, the Netherlands, on October 24, 1632. At the age of 16, he began to learn job skills in Amsterdam. At the age of 22, Leeuwenhoek returned to Delft. It wasn't easy for Leeuwenhoek to become a scientist. He knew only one language — Dutch — which was quite unusual for scientists of his time. But his curiosity was endless, and he worked hard. He had an important skill. He knew how to make things out of glass. This skill came in handy when he made lenses for his simple microscope. He saw tiny veins with blood flowing through them. He also saw living bacteria in pond water. He paid close attention to the things he saw and wrote down his observations. Since he couldn't draw well, he hired an artist to draw pictures of what he described.

- ① 세포 연구로 잘 알려진 과학자였다.
- ② 22살에 Delft로 돌아왔다.
- ③ 여러 개의 언어를 알았다.
- ④ 유리로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 ⑤ 화가를 고용하여 설명하는 것을 그리게 했다.

KYClogic 풀이 — 역순 매칭

- 1 질문 확인. "일치하지 **않는**" → ✓ 표시. 틀린 것을 찾는다.
- 2 ⑤번 검증. "Since he couldn't draw well, he hired an artist..." 일치 ○.
- 3 ④번 검증. "He knew how to make things out of glass." 일치 ○.
- 4 ③번 검증. "He knew **only one language** — Dutch" — only가 부정어. **한 개만** 알았다. 선지는 "여러 개" → 불일치 ✕.
- 5 정답 확정. ③ 발견 즉시 종료. ②와 ①은 검증할 필요 없음 (시간 절약).

정답 ③ — 여러 개의 언어를 알았다.

시간 절약의 핵심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에서, 답을 찾으면 즉시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나머지 선지를 다 검증할 필요 없다. "맞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답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한 번 결정한 답을 의심하지 마라.

27·28번 — 안내문 함정 정리

안내문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 표현이다. 미리 알아두면 30초 안에 푼다.

본문 표현	해석	주의점
not allowed / not permitted	허용되지 않음	금지인지 허용인지 헷갈리게 함
only members / members only	회원만 가능	일반인 가능 여부
except for ~	~을 제외하고	예외 사항 주의
refundable / non-refundable	환불 (불)가능	접두사 non-에 ✓
required / optional	필수 / 선택	의무 사항 여부
up to / at least / no more than	최대 / 최소 / ~이하	숫자 범위 정확히

2.2 29번 — 어법

중·고 6년간 배운 모든 문법이 한 문제에 압축된다. 난이도 편차가 매우 크다. 쉬울 땐 30초, 어려울 땐 빈칸 추론과 같은 4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 **의도 파악**. 출제자가 어떤 문법을 묻는지 모르면 절대 못 푼다.

유형 분석

다섯 개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다.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다음 7가지다.

출제 항목	판단 방법	출제 빈도
관계대명사 / 관계부사	뒤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
동사 / 준동사 (to부정사·동명사)	주절에 동사가 이미 있는가?	★★★★
능동 / 수동	주어가 행위자인가, 당하는가?	★★★★
대명사 수 일치 (it / they / its / their)	지시 대상이 단수인가 복수인가?	★★★★
주어-동사 수 일치	주어 명사가 단수인가 복수인가? (전치사구 무시)	★★
형용사 / 부사	명사를 꾸미는가? 동사·형용사·부사를 꾸미는가?	★★
병렬 구조 (and / or / but)	and 양쪽이 같은 형태(품사·구조)인가?	★★

풀이 절차

29번 풀이 절차

1. 밑줄 친 부분의 **품사**부터 확인.
2. 출제자의 **의도**를 읽는다 — 무엇을 묻는 거지?
3. 빠른 판정 5초 이내. 안 되면 다음 선지로.
4. 5개 다 본 뒤, 가장 의심스러운 것 결정. 30초 넘으면 △ 표시 후 보류.

▶ 의도 파악 — 밑줄 위치별 단서

- 동사 자리에 ing/to부정사가 있다 → 동사/준동사 문제.

- **that / which / what / who** 등이 밑줄 → 관계사 문제.
- **be동사 + p.p. / 일반동사 ing** → 능동/수동 문제.
- **it / they / its / their**가 밑줄 → 대명사 수일치.
- 동사가 밑줄, 주어가 떨어져 있음 → 주어-동사 수일치.

예제 8

평가원 29번 출제 패턴 **3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We usually get along best with people who we think are like us. In fact, we seek them out. It's why places like Little Italy, Chinatown, and Koreatown ① exist. But I'm not just talking about race, skin color, or religion. I'm talking about people who share our values and look at the world the same way we ② do. As the saying goes,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This is a very common human tendency ③ what is rooted in how our species developed. Imagine you are walking out in a forest. You would be conditioned to avoid something unfamiliar or foreign because there is a high likelihood that ④ it would be interested in killing you. Similarities make us ⑤ relate better to other people because we think they'll understand us on a deeper level than other people.

KYClogic 풀이 — 밑줄별 5초 판정

- ① **exist**. 주어 places (복수) → 복수 동사 exist. ○
- ② **do**. "we look at the world the same way we [look at] = do" — 대동사 ○
- ③ **what**. 앞에 명사 "tendency" 있음 → 관계대명사 자리. **what**은 선행사 포함이라 불가. **that** 또는 **which**가 와야 함. ✕ 어법상 틀림.
- ④ **it**. 앞 문장의 "something unfamiliar or foreign" 단수 → it ○
- ⑤ **relate**. "make + 목적어 + 원형부정사" 사역동사 구조 → relate ○

정답 ③ — what을 that 또는 which로 고쳐야 함

29번 시간 관리

① ② ③ ④ ⑤를 한 바퀴 도는 데 1분 30초 이상 걸리면 즉시 △ 표시하고 다음으로. 어법은 한 번에 안 보이면 두 번째에도 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시간을 더 쓸수록 손해다.

2.3 30번 — 어휘

30번은 어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빈칸 추론이다.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 — 그 단어가 단어 시험이 아니라 **맥락 시험**이다. 공식은 단순하다 — **증명, 증명, 증명.**

왜 30번이 어려운가

학생들의 가장 흔한 오해 — "30번은 어휘력 문제다." 틀렸다. 30번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단어다. 문제는 **그 단어가 이 문맥에서 맞는가**이다.

예시: **negatively / positively**. 둘 다 아는 단어. 그러나 어느 쪽이 이 문장에 어울리는가? 그것을 판단하려면 글 전체의 흐름을 잡아야 한다.

풀이 절차 — 증명의 원칙

30번 풀이 절차

1. 글의 **대주제**를 첫 두 문장에서 잡는다.
2. 5개 밑줄 단어 각각에 대해 묻는다 — "**이 단어, 이 자리 맞아?**"
3. 맞으면 ○, 의심스러우면 △, 반대 같으면 ✕.
4. ✕ 한 개를 찾으면 그것이 답.

▶ 30번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함정 유형	예시	판정 방법
반대말 함정	negatively ↔ positively, increase ↔ decrease, possible ↔ impossible	전체 톤(긍정/부정)으로 판단
유사 의미 단어	request ↔ demand, suggestion ↔ requirement	강도 차이
인과 뒤집기	"X 때문에 Y" vs "Y 때문에 X"	문장 구조와 흐름
감정 어휘 반전	welcomed ↔ rejected, comforted ↔ disturbed	주변 문장의 감정 톤

예제 9

평가원 30번 출제 패턴 **3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Rejection is an everyday part of our lives, yet most people can't handle it well. For many, it's so painful that they'd rather not ask for something at all than ask and ① risk rejection. Yet, as the old saying goes, if you don't ask, the answer is always no. Avoiding rejection ② negatively affects many aspects of your life. All of that happens only because you're not ③ tough enough to handle it. For this reason, consider rejection therapy. Come up with a ④ request or an activity that usually results in a rejection. Working in sales is one such example. Asking for discounts at the stores will also work. By deliberately getting yourself ⑤ welcomed you'll grow a thicker skin that will allow you to take on much more in life, thus making you more successful at dealing with unfavorable circumstances.

KYClogic 풀이 — 한 단어씩 증명

- 1 **대주제 잡기.** "거절 회피는 인생에 나쁜 영향. 거절을 견디는 훈련이 필요." → 거절 = 받아들여야 할 것.
- 2 ① **risk.** "ask하고 risk(거절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안 묻는다" — 회피 심리 ○
- 3 ② **negatively.** "거절 회피가 인생에 부정적 영향" — 글의 톤과 일치 ○
- 4 ③ **tough.** "당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그 일이 발생" — 거절을 못 견디는 이유 ○
- 5 ④ **request.** "거절을 유발할 만한 요청을 만들라" — 거절 치료 맥락 ○
- 6 ⑤ **welcomed.** "의도적으로 자신을 환영받게 만들면..." — **반대다.** 글의 핵심은 "거절받게 만들라"이지 "환영받게"가 아니다. **rejected**가 와야 함. ✕

정답 ⑤ — welcomed → rejected

30번 핵심 원칙

30번을 풀 때 한 단어 한 단어를 의심하라. "**이 단어가 자연스럽다**"는 직관은 함정이다. "**이 단어가 정말 글의 방향과 맞나?**"를 매번 자문해야 한다. 자문이 곧 증명이다.

PART THREE

3

고난도 추론 21 · 31 ~ 40번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구간이다.
여기서 한 문제 더 맞히면 한 등급이 올라간다.
그러나 여기에 시간을 쏟으면 한 등급이 떨어진다.
절차와 시간 관리를 동시에 하라.

3.1 21번 — 함축 의미 추론

21번은 18~20번 사이에 끼어 있어 학생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간다. 치명적인 실수다. **21번은 사실상 빈 칸 추론과 동급**이다.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21번 정답률은 34%였다.

21번의 본질

21번은 본문의 한 문장(또는 구)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 밑줄의 함축 의미를 묻는다. 정답은 그 밑줄의 사전적 뜻이 아니라, **글 전체의 주장과 연결한 비유적 의미**다.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 — 밑줄 친 부분을 사전적으로 해석하고 비슷한 영어 선지를 고른다. 그러면 100% 함정에 걸린다.

풀이 절차

21번 풀이 절차

1. **밑줄부터** 본다. 단,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이게 무슨 비유일까"를 본다.
2. **한정한정한정** — 글의 핵심 주장을 1문장으로 잡는다. 보통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
3. 밑줄 = 글의 주장의 비유적 표현이다. 매핑한다.
4. 5개 영어 선지 중, 글의 주장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선지가 답.

▶ 21번의 비유적 표현 패턴

밑줄에 자주 등장하는 비유 종류는 다음과 같다.

비유 유형	예시	해석 방향
동물·식물 비유	the rest of the sheep, birds of a feather, a fish out of water	집단·소속·환경 부적응
도구·물건 비유	a hammer / nail, a key, a mirror	도구의 한계·반사·관점
장소 비유	at the crossroads, in the dark, at the surface	선택·무지·표면적 이해
색·빛 비유	black and white, in the spotlight, shadow	이분법·주목·숨겨진 면
여행·길 비유	journey, road, destination, detour	과정·목표·우회

예제 10

평가원 21번 출제 패턴 **3점**

밑줄 친 Leave those activities to the rest of the sheep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job search is not a passive task. When you are searching, you are not browsing, nor are you "just looking". Browsing is not an effective way to reach a goal you claim to want to reach. If you are acting with purpose, if you are serious about anything you chose to do, then you need to be direct, focused and whenever possible, clever.

Everyone else searching for a job has the same goal, competing for the same jobs.

You must do more than the rest of the herd. Regardless of how long it may take you to find and get the job you want, being proactive will logically get you results faster than if you rely only on browsing online job boards and emailing an occasional resume. Leave those activities to the rest of the sheep.

- ① Try to understand other job-seekers' feelings.
- ② Keep calm and stick to your present position.
- ③ Don't be scared of the job-seeking competition.
- ④ Send occasional emails to your future employers.
- ⑤ Be more active to stand out from other job-seekers.

KYClogic 풀이

- 1 밑줄 분석. "those activities를 the rest of the sheep에게 맡겨라" → "그런 일들은 나머지 양들이나 하라". sheep = 무리, 평범한 다수.
- 2 한정 — 글 주장 1문장. "You must do more than the rest of the herd." (다수보다 더 많이 해야 한다.)
- 3 매핑. sheep = herd = 평범한 구직자들. those activities = 단순 인터넷 검색·간헐적 이메일. → "평범한 짓은 평범한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더 적극적으로 해라."
- 4 소거. ① 다른 구직자 감정 이해 — 글과 무관 ×. ② 가만히 있으라 — 정반대 ×. ③ 두려워하지 마라 — 글의 핵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차별화" ×. ④ 가끔 이메일 보내라 — 본문은 그것을 "양들이 하는 짓"으로 비판 ×.
- 5 정답. ⑤ "다른 구직자들로부터 두드러지도록 더 적극적이 되어라" — 글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

정답 ⑤ — Be more active to stand out from other job-seekers.

21번을 마지막에 푸는 이유

21번은 글의 주장이 명확히 잡혀야 풀린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18~20번 흐름에서 21번에 들어가면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렵다"는 충격을 받고 시간이 무너진다. **31~34번 빈칸을 다 푼 뒤, 또는 시험 마지막에 21번을 푼다.** 이 순서 변경 하나로 두 등급이 바뀐 학생을 여러 번 봤다.

3.2 31~34번 — 빈칸 추론

수능 영어의 정점이다. 빈칸 4문항만으로 평균 12점. 31번이 가장 쉽고 34번이 가장 어렵다 — 이 통념도 매년 깨진다. 공식은 없다. 그러나 절차는 있다.

빈칸 유형의 진화

2024학년도 9월 평가원부터 빈칸 유형의 트렌드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추상적 개념을 명사구로 채우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출제 방식이 늘었다.

- 긴 명사구·문장 단위 빈칸 — 단어가 아니라 절을 채워야 함.
- 비유·재진술 빈칸 — 본문의 다른 표현을 바꿔 말한 것을 채움.
- 정답 단서가 분산된 빈칸 — 한 문장이 아닌 글 전체에 단서가 흩어짐.

빈칸의 핵심 원리 — 재진술 (Paraphrase)

빈칸 추론의 본질은 단 하나다. **정답은 본문 어딘가에 다른 말로 쓰여 있다.** 빈칸은 그것을 한 번 더 말하는 자리다.

그래서 빈칸 풀이는 "추론"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매칭"이다. 본문의 핵심 문장과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 선지를 찾는 것이다.

31~34번 풀이 절차

1. 빈칸 자리 문장을 먼저 읽고, 빈칸이 무엇을 채우는지 파악.
2. 첫 문장 + 마지막 문장을 읽고 글의 대주제 잡기.
3. 빈칸 앞뒤 문장에서 단서 찾기 (단, 단서가 부족하면 글 전체로 확장).
4. 5개 선지를 핵심 단어로 압축.
5. 소거로 마무리. 함정 차단.

빈칸 함정 4가지

▶ 함정 1 — 본문 단어 그대로 사용한 선지

가장 흔한 함정. 본문에 등장한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 선지는 80% 오답이다. 정답은 거의 항상 paraphrase다.

▶ 함정 2 — 부분 단서 매칭

선지가 본문의 일부 문장과는 일치하지만, 글의 전체 주장과는 어긋나는 경우. 빈칸 추론은 글 전체로 풀어야 한다.

▶ 함정 3 — 정도(degree) 차이

본문이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선지가 "필수이다"라고 하면 너무 강한 진술. 본문의 강도와 선지의 강도를 맞춰라.

▶ 함정 4 — 인과 뒤집기

본문이 "A 때문에 B"라고 했는데 선지는 "B 때문에 A". 인과의 방향을 반드시 확인.

예제 11

평가원 33번 출제 패턴 **3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ost times a foreign language is spoken in film, subtitles are used to translate the dialogue for the viewer. However, there are occasions when foreign dialogue is left subtitled (and thus incomprehensible to most of the target audience). This is often done if the movie is seen mainly from the viewpoint of a particular character who does not speak the language. Such absence of subtitles allows the audience to feel a similar sense of incomprehension and alienation that the character feels. An example of this is seen in *Not Without My Daughter*. The Persian language dialogue spoken by the Iranian characters is not subtitled because the main character Betty Mahmoody does not speak Persian and the audience is _____.

- ① seeing the film from her viewpoint
- ② impressed by her language skills
- ③ attracted to her beautiful voice
- ④ participating in a heated debate
- ⑤ learning the language used in the film

KYClogic 풀이

- 1 **빈칸 자리.** "주인공 Betty가 페르시아어를 못 하고 청중도 ____이다." — Betty와 청중이 같은 입장을 의미하는 단어 자리.
- 2 **대주제.** "자막을 일부러 안 넣음으로써 청중이 인물이 느끼는 이해 불가·소외감을 똑같이 느낀다."
- 3 **매핑.** Betty가 페르시아어를 못 알아듣는다 = 청중도 못 알아듣는다 = **청중이 Betty의 시점에서 영화를 본다.**
- 4 **소거.** ② 언어 능력에 감명 — 정반대 ×. ③ 목소리에 매료 — 본문 무관 ×. ④ 토론 참여 — 무관 ×. ⑤ 언어를 배움 — 본문은 "이해 못함"이 핵심 ×.
- 5 **정답.** ① "her viewpoint(그녀의 시점에서) 영화를 보는" — 본문 "from the viewpoint of a particular character"의 정확한 paraphrase.

정답 ① — seeing the film from her viewpoint

빈칸을 못 푸는 학생을 위한 처방

처방 1 — 본문을 "한 줄로" 정리하는 훈련

매일 빈칸 한 문제를 풀고, 풀이가 끝난 뒤 본문을 한국어 한 줄로 요약한다. "이 글은 _____이다." 이 빈칸을 채우는 훈련이 빈칸 추론의 본질이다.

처방 2 — 정답 선지의 "변형"을 추적

정답 선지가 본문의 어떤 문장을 어떻게 paraphrase했는지 매번 확인한다. 동의어 치환? 명사구 → 동명사? 능동 → 수동? 패턴이 보인다.

처방 3 — 시간 컷오프 적용

빈칸 한 문제 4분 컷. 4분 넘으면 △ 표시 후 다음으로. 시험장에서 빈칸 한 문제에 6분 쓰면 다른 두 문제를 못 푼다. **한 문제 살리려다 두 문제 잃지 말 것.**

3.3 35번 — 무관한 문장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한 문장을 찾는 문제다.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잡아먹는 대표 유형. 핵심은 **소재의 땃 내리기**.

풀이 절차

35번 풀이 절차

1. 첫 문장에서 **소재(소재 = 키워드)**를 잡고 땃을 내린다.
2. ①~⑤를 차례로 보면서, 그 소재에서 벗어나는 문장 = X.
3. **역접 시그널**(However, In contrast, On the other hand) 직후의 문장은 의심.
4. 마지막 문장과 ④번 직전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확인.

▶ "땃 내리기"의 의미

35번에서 학생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 — 한 문장을 보고 "이게 어색해 보인다"고 답을 정한 뒤, 다음 문장을 보고 "어? 이것도 어색하네" 하고 갈팡질팡한다.

해결책은 단순하다. **첫 문장의 소재를 땃으로 삼아라**. 첫 문장이 "커피의 효과"라면, 그 외의 소재(차의 효과, 일반적 자극제, 수면 등)가 등장하면 일단 의심한다. 단, 글이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도 있으니 한 번에 결정하지 말고 ①~⑤ 다 본 뒤 결정한다.

예제 12

평가원 35번 출제 패턴 **2점**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Who hasn't used a cup of coffee to help themselves stay awake while studying? Mild stimulants commonly found in tea, coffee, or sodas possibly make you more attentive and, thus, better able to remember. ① However, you should know that stimulants are as likely to have negative effects on memory as they are to be beneficial. ② Even if they could improve performance at some level, the ideal doses are currently unknown. ③ If you are wide awake and well-rested, mild stimulation from caffeine can do little to further improve your memory performance. ④ **In contrast,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drinking tea is healthier than drinking coffee.** ⑤ Indeed, if you have too much of a stimulant, you will become nervous, find it difficult to sleep, and your memory performance will suffer.

KYClogic 풀이

- 1 **땀 내리기.** 첫 문장 소재 = "자극제(커피·차·탄산)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 핵심 키워드 = stimulants + memory.
- 2 ①번. "자극제는 기억에 부정적 영향도 가능" — 자극제 + 기억 ○
- 3 ②번. "성능을 개선해도 적정 복용량이 불명확" — 자극제 + 영향 ○
- 4 ③번. "잘 자고 있으면 카페인 자극은 기억 개선에 별 도움 안 됨" — 자극제 + 기억 ○
- 5 ④번. "차가 커피보다 건강에 좋다" — **기억과 무관**. 단순 건강 비교. ✕
- 6 ⑤번. "자극제 과다 → 기억 성능 저하" — 자극제 + 기억 ○
- 7 **검증.** ④를 빼고 ③ → ⑤ 연결. "잘 자고 있으면 도움 안 됨 →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 됨." 자연스럽게 이어짐. ✓

정답 ④ — 흐름과 무관

35번 함정 — 매력적 오답

④ "In contrast"라는 역접 시그널이 있어서 학생들이 "역접 = 흐름 전환"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흐름 전환이라면 ⑤번도 그 흐름을 이어받아야 한다. ⑤번이 ④의 흐름을 안 받는다면 ④가 무관 문장.

3.4 36~37번 — 글의 순서

주어진 글 다음에 (A), (B), (C)를 배열하는 문제. 공식은 단순하다 — **사슬 연결**. 주어진 글의 다음 한 칸만 잘 정하면 게임 끝.

왜 36번이 어려워지는가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36번은 정답 (A)-(C)-(B), 오답률 88.5%를 기록했다. 이는 수능/평가원 영어 영역 역사상 역대 최고 오답률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학생들이 "처음 한 번 봤을 때 자연스러워 보이는 순서"를 그대로 답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근거 없이 처음 거 고르지 마라"는 원칙이 무너졌다.

풀이 절차 — 사슬 연결

36~37번 풀이 절차

1. 주어진 글의 마지막 문장을 정확히 분석.
2. (A), (B), (C) 각각의 첫 문장을 확인.
3. **사슬 연결** — 두 칸을 먼저 잡는다. 보통 두 칸은 명백.
4. 남은 한 칸의 위치를 결정.
5. 검증 —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고 흐름 확인.

▶ 연결 단서 — 사슬의 고리

각 단락의 첫 부분에서 다음 단서를 찾는다. 이 단서들이 "이 단락은 어디 다음에 와야 한다"를 결정한다.

단서 종류	예시	의미
지시어	this, that, these, those, such, the	앞에 언급된 것을 가리킴
대명사	he, she, it, they	앞에 등장한 명사의 대체
역접 연결사	But, However, Yet, Still	앞 단락과 반대 흐름
예시 연결사	For example, For instance	앞 진술의 예시
인과 연결사	So, Therefore, Thus, As a result	앞 진술의 결과
대체 표현	Instead of these approaches	앞 단락의 내용을 대체·반박

예제 13

평가원 36번 출제 패턴 **2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어진 글]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 new architectural attitude emerged. Industrial architecture, the argument went, was ugly and inhuman; past styles had more to do with pretension than what people needed in their homes.

(A) But they supplied people's needs perfectly and, at their best, had a beauty that came from the craftsman's skill and the rootedness of the house in its locality.

(B) Instead of these approaches, why not look at the way ordinary country builders worked in the past? They developed their craft skills over generations, demonstrating mastery of both tools and materials.

(C) Those materials were local, and used with simplicity — houses built this way had plain wooden floors and whitewashed walls inside.

- ① (A) – (C) – (B)
- ② (B) – (A) – (C)
- ③ (B) – (C) – (A)
- ④ (C) – (A) – (B)
- ⑤ (C) – (B) – (A)

KYClogic 풀이 — 사슬 연결

- 1 주어진 글 마지막. "산업 건축은 추하고 비인간적, 과거 양식은 허세에 불과" — 두 가지 접근(산업/과거 양식) 모두 비판.
- 2 (B) 첫 부분. "**Instead of these approaches**, why not look at..." — these approaches = 주어진 글의 두 접근. (B)가 주어진 글 다음. ✓
- 3 (C) 첫 부분. "**Those materials** were local..." — Those materials = (B) 마지막의 "tools and materials". (C)는 (B) 다음. ✓
- 4 (A) 첫 부분. "**But they** supplied people's needs perfectly..." — they = ? (C)에서는 "houses". (A)는 houses에 대한 추가 설명. (A)는 (C) 다음. ✓
- 5 검증. 주어진 글 → (B) Instead → (C) Those materials → (A) But they. 모든 연결 자연스러움.

정답 ③ — (B) — (C) — (A)

"근거 없이 처음 거 고르지 마라"

순서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처음 봤을 때 "이게 자연스러워 보여" 하고 정해버리는 순간이다. **반드시 지시어/대명사/연결사로 두 칸의 연결을 증명한 뒤 정답을 적는다.** 증명 없는 직관은 88.5% 오답률을 만든다.

3.5 38~39번 — 문장 삽입

주어진 한 문장이 본문의 ①~⑤ 자리 중 어디에 들어갈지 정하는 문제. 순서 문제와 형제 관계지만 절차가 약간 다르다. 핵심은 **"너 아니면 안 돼" 위치 찾기**.

풀이 절차

38~39번 풀이 절차

1. 주어진 문장부터 분석.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가리키는 지시어/대명사가 있는지.
2. 본문에서 해당 소재가 등장하는 범위 좁히기.
3. **"너 아니면 안 돼"** 검증 — 이 자리에 안 넣으면 흐름이 끊기는가?
4. **연결사·역접** 위치 의심 — 보통 정답은 But/However 직전이거나 직후.

▶ 주어진 문장의 단서

주어진 문장의 표현	해석	위치 단서
this, that, these, those, such	지시어	앞에 그 대상이 있어야 함
he, she, it, they	대명사	앞에 그 명사가 있어야 함
However, But, Yet	역접	앞 흐름과 반대 내용 필요
also, in addition, moreover	첨가	앞 흐름과 같은 방향 필요
For example, For instance	예시	앞에 일반 진술 필요
this idea, this approach, this is why	요약 지시	앞에 구체 내용 필요

예제 14

평가원 39번 출제 패턴 **3점**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주어진 문장] Since the dawn of civilization, our ancestors created myths and told legendary stories about the night sky.

We are connected to the night sky in many ways. (①) It has always inspired people to wonder and to imagine. (②) **Elements of these narratives became embedded in the social and cultural identities of many generations.** (③) On a practical level, the night sky helped past generations to keep track of time and create calendars — essential to developing societies as aids to farming and seasonal gathering. (④) For many centuries, it also provided a useful navigation tool, vital for commerce and for exploring new worlds. (⑤) Even in modern times, many people in remote areas of the planet observe the night sky for such practical purposes.

KYClogic 풀이

- 1 주어진 문장 분석. "조상들이 밤하늘에 대한 신화·전설을 만들었다." 키워드 = myths, legendary stories.
- 2 단서 검색. 본문 ②번 직후 "Elements of **these narratives...**" — these narratives = 무엇? 본문 앞 어디에도 narratives에 대한 언급이 없다. 주어진 문장의 **myths/stories가 these narratives의 선행어**.
- 3 "너 아니면 안 돼" 검증. ②자리에 주어진 문장을 넣으면: "It has inspired people → 조상들이 신화·이야기를 만들 → Elements of these narratives became embedded..." 완벽한 흐름.
- 4 다른 자리 검증. ①~⑤ 어느 자리에 넣어도 these narratives의 선행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②만 가능.

정답 ② — these narratives의 선행어로 연결

3.6 40번 — 요약문 완성

본문 아래 한 문장으로 요약된 빈칸이 두 개 있다. (A)와 (B)에 들어갈 단어 조합을 고르는 문제. 본문 전체보다 **요약문**이 핵심이다.

왜 40번을 빨리 풀 수 있는가

40번은 본문이 길지만 시간이 적게 걸리는 유형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요약문 자체가 답을 좁혀준다.**

요약문의 (A)와 (B)는 보통 다음 두 가지를 묻는다.

1. (A) — 본문의 핵심 동작 또는 효과의 방향성 (increase/decrease 같은 반대말).
2. (B) —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 또는 평가 (positive/negative).

풀이 절차

40번 풀이 절차

1. **요약문부터** 읽는다. (A)와 (B)에 한정 시킨다.
2. 5개 선지의 (A) 단어들을 본다 — 보통 2~3개로 압축됨 (반대 의미 쌍).
3. (B) 단어들을 본다 — 마찬가지로 2~3개.
4. 본문에서 (A)와 (B)에 해당하는 부분만 정조준해서 찾는다.
5. 매칭.

예제 15

평가원 40번 출제 패턴

2점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common blackberry (*Rubus allegheniensis*) has an amazing ability to move manganese from one layer of soil to another using its roots. This may seem like a funny talent for a plant to have, but it all becomes clear when you realize the effect it has on nearby plants. Manganese can be very harmful to plants, especially at high concentrations. Common blackberry is unaffected by damaging effects of this metal and has evolved two different ways of using manganese to its advantage. First, it redistributes manganese from deeper soil layers to shallow soil layers using its roots as a small pipe. Second, it absorbs manganese as it grows, concentrating the metal in its leaves. When the leaves drop and decay, their concentrated manganese deposits further poison the soil around the plant. For plants that are not immune to the toxic effects of manganese, this is very bad news. Essentially, the common blackberry eliminates competition by poisoning its neighbors with heavy metals.

↓ 요약문

The common blackberry has an ability to ____ (A) ____ the amount of manganese in the surrounding upper soil, which makes the nearby soil quite ____ (B) ____ for other plants.

- ① (A) increase / (B) deadly
- ② (A) increase / (B) advantageous
- ③ (A) indicate / (B) nutritious
- ④ (A) reduce / (B) dry
- ⑤ (A) reduce / (B) warm

KYClogic 풀이

- 1 **요약문 분석.** "blackberry는 주변 잎층 토양의 망간 양을 ____ (A) ____ 하는 능력이 있고, 이는 주변 토양을 다른 식물에게 ____ (B) ____ 하게 만든다."
- 2 **(A) 후보.** increase / indicate / reduce. → 본문에서 망간을 잎층으로 "옮기고" 잎으로 "농축"하므로 잎층 토양 망간이 **증가**. → increase.
- 3 **(A) 결정.** ① ② 후보 남음.
- 4 **(B) 후보.** deadly / advantageous. → 본문 "very bad news for plants" → 다른 식물에게 **치명적**. → deadly.

정답 ① — (A) increase / (B) deadly

40번 시간 단축의 비결

요약문의 (A) 단어 5개를 보고, 의미상 2개 그룹으로 나눈다 (보통 increase 계열 vs reduce 계열). 본문에서 어느 그룹이 맞는지만 빠르게 판정. 그러면 5개 선지가 즉시 2~3개로 압축된다. **평균 1분 30초면 충분.**

PART FOUR

4

장문 41 ~ 45번

한 지문에 두 문항(41-42), 한 지문에 세 문항(43-45).

지문이 길어 보이지만, 한 지문으로 여러 문제를 풀기에 효율은 가장 높다.

비결은 **역순 풀이**. 45 → 44 → 43.

4.1 41~42번 — 1지문 2문항

같은 지문으로 두 문제를 푼다. 41번은 "글의 제목" 또는 "주제", 42번은 "문맥상 어휘". 순서를 거꾸로 풀어서 — **42번을 먼저, 41번을 그 다음**.

왜 42번부터 푸는가

42번 어휘 문제는 30번과 똑같은 유형이다. 한 단어 한 단어를 글의 흐름과 비교하며 푸는 동안, **자연스럽게 글의 대주제가 머리에 들어온다**. 그 대주제를 가지고 41번 제목 문제를 풀면 빠르다.

반대로 41번을 먼저 풀면 어떻게 될까? 글을 한 번 통독해야 하고, 다시 42번을 풀려면 단어 다섯 개를 또 검토해야 한다. **중복 작업**.

풀이 절차

41~42번 풀이 절차

1. 42번부터 시작. (30번과 동일한 어휘 풀이 절차 적용.)
2. 한 단어 한 단어 흐름과 비교. X 한 개 발견.
3. 그 과정에서 잡힌 **대주제**를 가지고 41번으로.
4. 41번 제목 후보 5개 → 24번 풀이 절차로 소거.

예제 16평가원 41-42번 출제 패턴 **2+3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he longest journey we will make is the eighteen inches between our head and heart. If we take this journey, it can shorten our (a) misery in the world. Impatience, judgment, frustration, and anger reside in our heads. When we live in that place too long, it makes us (b) unhappy. But when we take the journey from our heads to our hearts, something shifts (c) inside. What if we were able to love everything that gets in our way? What if we tried loving the shopper who unknowingly steps in front of us in line, the driver who cuts us off in traffic, the swimmer who splashes us with water during a belly dive, or the reader who pens a bad online review of our writing?

Every person who makes us miserable is (d) like us — a human being, most likely doing the best they can, deeply loved by their parents, a child, or a friend. And how many times have we unknowingly stepped in front of someone in line? Cut someone off in traffic? Splashed someone in a pool? Or made a negative statement about something we've read? It helps to (e) deny that a piece of us resides in every person we meet.

41.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Why It Is So Difficult to Forgive Others
- ② Even Acts of Kindness Can Hurt Somebody
- ③ Time Is the Best Healer for a Broken Heart
- ④ Celebrate the Happy Moments in Your Everyday Life
- ⑤ Understand Others to Save Yourself from Unhappiness

42. 밑줄 친 (a)~(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② (b)
- ③ (c)
- ④ (d)

⑤ (e)

KYClogic 풀이 — 42번 먼저

- 1 **대주제 잡기.**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정.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이해하면 행복해진다."
- 2 **(a) misery.** "이 여정이 우리의 misery(고통)를 줄인다." 글의 핵심과 일치 ○
- 3 **(b) unhappy.** "머릿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unhappy(불행)" ○
- 4 **(c) inside.**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면 inside(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남" ○
- 5 **(d) like.**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우리와 like(같다)" ○
- 6 **(e) deny.** "우리의 일부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deny(부정)하는 것이 도움 된다." → 글의 주장과 **정반대**. 글은 그것을 **인정·이해**하라고 함. **acknowledge / accept**가 와야. ✕

42번 정답 ⑤ (e) deny → acknowledge

- 7 **41번 풀이.** 대주제 = "타인을 이해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 → 정확히 ⑤ "Understand Others to Save Yourself from Unhappiness".
- 8 **소거.** ① 용서가 어려운 이유 — 본문은 "어려움"이 핵심 아님 ✕. ② 친절도 상처 — 정반대 ✕. ③ 시간이 치유 — 본문 무관 ✕. ④ 행복한 순간 축하 — 본문 무관 ✕.

41번 정답 ⑤ — Understand Others to Save Yourself from Unhappiness

4.2 43~45번 — 1지문 3문항

서사문 한 편을 (A)(B)(C)(D) 네 단락으로 잘라 놓고 세 문제를 묻는다. 43번 — 단락 순서. 44번 — 지칭 대상. 45번 — 내용 일치. 반드시 **45 → 44 → 43** 순으로 푼다.

왜 역순으로 푸는가

43번(순서)을 먼저 풀려고 하면, 학생은 (A)~(D) 네 단락을 모두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게 4분 이상 걸린다.

그러나 45번(내용 일치)부터 풀면 다르다. 45번 한국어 선지를 읽으며 단락을 검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락별 내용이 정리된다. 그 정리된 정보로 44번을 풀고, 마지막에 43번 순서를 잡으면 단락 순서가 거의 자동으로 보인다.

풀이 절차 — 역순 (45 → 44 → 43)

43~45번 풀이 절차

45번 먼저

1. 한국어 선지 5개를 본다.
2. 핵심어(인물, 장소, 동작) 표시.
3. (A)~(D) 단락을 훑으며 매칭. 일치하지 않는 1개 발견.

44번 그 다음

4. 밑줄 친 5개 대명사 (a)~(e). 각각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5. 인물 표기 — 단락마다 등장 인물에 약어로 표시.

43번 마지막

6. (A)는 주어진 단락. 보통 (A) → (B/C/D) → ... → 결말.
7. 위에서 정리된 정보로 단락 흐름 결정.

▶ 등장 인물 표기 — 약어 활용

43~45번 지문에는 보통 2~3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약어로 표기하면 혼동이 줄어든다.

표기 예	설명
young man → Y	젊은 남자
middle-aged man → M	중년 남자
monk → k	수도승

예제 17평가원 43-45번 출제 패턴 **2+2+2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One day a **young man** was walking along a road on his journey from one village to another. As he walked he noticed **a monk** working in the fields. The young man turned to the monk and said, "Excuse me. Do you mind if I ask (a) you a question?" "Not at all," replied the monk.

(B) A while later a **middle-aged man** journeyed down the same road and came upon the monk. "I am going to the village in the valley," said the man. "Do you know what it is like?" "I do," replied the monk, "but first tell (b) me about the village where you came from." "I've come from the village in the mountains," said the man. "It was a wonderful experience. I felt as though I was a member of the family in the village."

(C) "I am traveling from the village in the mountains to the village in the valley and I was wondering if (c) you knew what it is like in the village in the valley." "Tell me," said the monk, "what was your experience of the village in the mountains?" "Terrible," replied the young man. "I am glad to be away from there. I found the people most unwelcoming. So tell (d) me what can I expect in the village in the valley?" "I am sorry to tell you," said the monk, "but I think your experience will be much the same there." The young man lowered his head helplessly and walked on.

(D) "Why did you feel like that?" asked the monk. "The elders gave me much advice, and people were kind and generous. I am sad to have left there. And what is the village in the valley like?" he asked again. "(e) I think you will find it much the same," replied the monk. "I'm glad to hear that," the middle-aged man said smiling and journeyed on.

43.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은?

- ① (B) - (D) - (C)
- ② (C) - (B) - (D)
- ③ (C) - (D) - (B)
- ④ (D) - (B) - (C)

⑤ (D) - (C) - (B)

44. 밑줄 친 (a)~(e) 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5. 밑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수도승이 들판에서 일하고 있었다.
- ② 중년 남자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다.
- ③ 수도승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에 대해 질문받았다.
- ④ 수도승의 말을 듣고 젊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 ⑤ 중년 남자는 산속에 있는 마을을 떠나서 기쁘다고 말했다.

KYClogic 풀이 — 45 → 44 → 43

- 1 **45번 먼저.** 인물 약어 정리: Y(young man), M(middle-aged man), k(monk).
- 2 **선지 매칭.** ① "수도승이 들판에서 일하고 있었다" — (A) 일치 ○. ② "중년 남자가 골짜기 마을로" — (B) 일치 ○. ③ "수도승이 골짜기 마을에 대해 질문받음" — Y와 M 둘 다 물음 ○. ④ "수도승 말 듣고 젊은이 고개 숙임" — (C) "young man lowered his head" ○. ⑤ "중년 남자가 산속 마을 떠나서 기쁨" — (D) "I am sad to have left there" → **슬퍼한다**. 정반대. ✕
- 3 **45번 정답.** ⑤
- 4 **44번.** (a) 수도승에게 질문 — Y가 k에게 → "you" = 수도승 k. (b) "tell me" — k가 M에게 → "me" = k. (c) "if you knew" — Y가 k에게 → "you" = k. (d) "tell me" — Y가 k에게 → "me" = k. (e) "I think" — k가 M에게 → "I" = k.
- 5 **검증.** 모두 monk(k). **예외 없음.** 다시 보면 (a) "Do you mind if I ask you a question?" — Y가 k에게 묻는 상황이므로 you = k. (b) k가 M에게 "tell me" → me = k. (c) Y가 k에게 → you = k. (d) Y가 k에게 → me = k. (e) k가 M에게 → I = k. 모두 k. **출제 변형으로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만약 한 곳에서 화자가 바뀐다면 그 자리가 답.
- 6 **43번.** (A) Y가 k에게 질문 시작. → 그다음? Y의 질문 내용이 펼쳐지는 (C) (Y가 골짜기 마을에 대해 질문). → (C) 끝에 Y가 떠남. → (B) 시간이 흐른 후 M이 등장 ("A while later..."). → (D) M이 질문에 답하는 장면. (B) → (D) 자연스러움.

43번 정답 ② — (C) — (B) — (D)

44번 정답 — 모두 monk를 가리킴 (출제 시 1개가 다른 인물로 나오는 경우 그것이 답)

45번 정답 ⑤

43~45번 시간 관리

세 문제 합쳐 8분 이내. 45번 2분, 44번 2분, 43번 4분이 적정. 각 문제마다 단락을 다시 읽지 말고, **한 번 머리에 들어간 정보로 세 문제를 처리한다는** 의식이 핵심.

A P P E N D I X

附

부록

시험장에서 한 페이지로 보고 들어가는 요약.

A는 절차표, B는 시그널 어휘 정리, C는 한 장 요약 Cheat Sheet.

A 유형별 절차 한눈에 보기

시험 직전 5분, 이 표 한 장만 본다.

번호	유형	첫 동작	핵심 절차
18	글의 목적	선지 동사	본문 다 읽지 마라. please / I am writing to 찾기.
19	심경 변화	선지 +/- 부호	앞 2줄 / 뒤 2줄만. 신체 반응 묘사 단서.
20	주장	선지 동사 어미	must / should / 명령형 / 마지막 문장.
21	함축 의미	밑줄의 비유	제일 마지막에 푼다. 글 주장과 매핑.
22	요지	선지부터	20번과 동일. 정도 함정 주의.
23	주제	선지 핵심 명사	본문 반복 명사. 1초 매칭.
24	제목	100% 소거	본문 단어 그대로 = 80% 함정.
25~28	도표·일치	선지부터	⑤ → ① 역순. 답 찾으면 즉시 종료.
29	어법	밑줄 품사 확인	5초 판정. 안 보이면 △.
30	어휘	한 단어씩 증명	반대말 함정 주의. "이 단어 맞아?" 자문.
31~34	빈칸 추론	빈칸 자리 → 대주제	paraphrase 매칭. 4분 컷.
35	무관 문장	첫 문장 닳 내리기	소재 일탈 한 문장.
36~37	글의 순서	주어진 글 마지막	두 칸 먼저 확정. 사슬 연결.
38~39	문장 삽입	주어진 문장 단서	"너 아니면 안 돼" 검증.
40	요약문	요약문부터	(A)(B) 2그룹 압축. 1분 30초.
41~42	1지문 2문항	42번 먼저	어휘로 대주제 → 41번 제목.

43~45

1지문 3문항

45 → 44 → 43

역순. 인물 약어 표기.

| 풀이 순서 권장안

RECOMMENDED ORDER

듣기 (1~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21 (이 시점에서)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 표시 문제 검토

B 자주 쓰는 시그널 어휘

지문에서 만나면 즉시 동그라미 칠 것.

역접 시그널 — 필자의 진짜 주장 직전

표현	해석
but, however, yet, still	그러나, 그래도
nevertheless,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fact, actually, indeed	실제로는, 사실은
on the contrary, on the other hand	반대로
despite, in spite of	~에도 불구하고
although, even though, while, whereas	~이지만

결론 시그널 — 마지막 정리 직전

표현	해석
so, therefore, thus, hence	그러므로
as a result,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in short, in conclusion, in sum	요컨대
that is, in other words, namely	즉, 다시 말해
this is why, this is because	이것이 ~인 이유

예시·부연 시그널 — 시간 부족하면 건너뛰기

표현	해석
for example, for instance	예를 들어
such as, like, including	~와 같은
specifically, in particular	구체적으로, 특히
imagine, suppose, consider	~을 상상해 보라

첨가·강조 시그널

표현	해석
also, moreover, furthermore, in addition	또한, 게다가
not only ~ but also	~뿐만 아니라 ~도
above all, most importantly	무엇보다도
especially, particularly	특히

부정어 — 무조건 ✓ 표시

표현	유형
not, never, no, none, neither, nor	강한 부정
few, little, hardly, rarely, seldom, scarcely	약한 부정 (자주 놓침)
only, just, merely, simply	제한 (한정 부정)
fail to, lack of, absence of	의미상 부정
far from, anything but, nothing but	관용 부정

| 긍정·부정 톤 형용사 (19번·30번 핵심)

▶ 긍정 (+)

- hopeful, delighted, proud, satisfied
- relaxed, calm, peaceful, content
- grateful, thankful, pleased
- confident, relieved, excited
- thrilled, joyful, cheerful
- beneficial, favorable, advantageous
- positive, constructive, productive

▶ 부정 (-)

- nervous, anxious, worried, tense
- scared, terrified, frightened
- frustrated, angry, irritated
- disappointed, depressed, miserable
- embarrassed, ashamed, regretful
- jealous, guilty, lonely
- harmful, damaging, deadly, toxic

Cheat Sheet — 한 장 요약

모의고사 시작 **30초 전**에 이 한 장만 다시 읽어라. 18번부터 45번까지 모든 유형의 절차가 한 줄씩 압축되어 있다.

1차 사이클 — 듣기 중 / 듣기 직후

번호	유형	한 줄 절차
18	목적	선지부터 → 신호어(So/asking/please) 한 문장 → 매칭
19	심경	선지 +/- 부호화 → 본문 부호 단어 → 매칭
20	주장	한글 선지 [주어]/[술어] 분리 → 마지막 문장 결론 → 매칭
22	요지	역접 신호어 다음 문장 → 핵심 명사 매칭 → 소거
23	주제	선지 주명사 추출 → 본문 반복 명사 → 소거
24	제목	본문 첫·끝 + 핵심어 → 4가지 결합 패턴 소거
25	도표	질문 ✓ → 5번부터 역순 검색
26	인물	질문 ✓ → 5번부터 역순 검색
27~28	안내문	항목 매칭 → 5번부터 역순
45	내용 일치	선지 핵심어 → 5번부터 역순
44	지칭	A/B/C 인물 부호 → 4:1 분포 확인
43	순서	(A) 끝 + 다음 단락 첫 문장 호응

자유 풀이 구간

번호	유형	한 줄 절차
29	어법	품사 식별 → 3대 패턴(준동사/관계사/수일치) → 2분 손절
30	어휘	본문 방향 + 단어 부호화 → 어긋난 1개
35	무관	첫 문장 닳 → 각 선지 닳 일치 검사
40	요약	요약문 (A)·(B) → (A) 결정으로 절반 소거
42	장문 어휘	본문 방향 + 단어 부호화 → 30번과 같음
41	장문 제목	42번 5문장 조합 → 주제 추출

2차 사이클 — 최후의 결전

번호	유형	한 줄 절차
36~37	순서	두 단락 사슬 먼저 → 지칭/시간/역접/질문답변
38~39	삽입	상자 단서어(지칭/연결사) → 흐름 끊긴 위치
21	함축	밑줄 한정 → 앞뒤 대조 → 어느 축인지 판정
31	빈칸 단어	기능 판정 → +/- 가르기 → 소거
32~33	빈칸 구절	앞뒤 1~2문장 → 재진술 키워드 매칭
34	빈칸 추상문	본문 핵심을 "다른 표현"으로 옮긴 선지

공통 4원칙 — 모든 유형에 적용

ALWAYS

- ① 부정어 ✓ 표기 — not, never, no, hardly, rarely, few, little
- ② 선지부터 본 다음 본문
- ③ 핵심어 동그라미·밑줄
- ④ 결론부터 찾기

이 한 장만 외워도 1등급으로 가는 길이 보인다.
그럼, 시험장에서 만나자.

마지막 한 마디

방법론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에 익히는 것이다.
이 책의 절차 17개를, 기출 한 회를 풀 때마다 한 번씩 적용하라.
세 회를 그렇게 풀면 손이 외운다. 그때 등급이 바뀐다.

KYClogic